



광주 원어민 영어교사 재계약률 82%

광주지역 초·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재계약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갖춘 원어민 교사 상당수가 재계약에 나섰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1일 광주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영어교사 50명 중 1년간 계약 기간을 마치고 계약 연장을 희망한 교사는 82% 수준인 41명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 재계약율을 기록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어민 영어교사의 평균 재계약율은 57% 수준이었다.

원어민 교사들의 재계약이 많아지면서 교육경력 1년 미만의 저경력 원어민 교사 역시 지난해 46%에서 올해 18%로 감소하게 됐다.

여기에 교사들의 평균 교육경력도

전년보다 25% 증가... 1년 미만 경력자 28% 줄어 초·중 교육 질 향상·신규채용 예산 1870만원 절감 사업부서 일원화로 근무환경 개선·지원 정책 효과

2.3년으로 높아지면서 광주지역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영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원어민 교사를 신규채용하게 될 경우 재계약보다 채용비용이 줄어 든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원어민 교사 신규채용 시 재계약 채용보다 1인당 156만원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 재계약율이 57%에서 올해 82%로 증가함에 따라 총 1870만원 상당을 절감하게 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신규 교사가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전 필요한

교육비용과 행정 경비를 더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융합교육원 관계자는 "올해 원어민 교사의 재계약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학생들은 경험이 많은 교사들과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어민 교사들의 재계약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원어민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사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시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기존 분산됐던 원어민 관련 사업부서가 창의융합교육원으로 통합돼 단일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어민 교사들의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현행 법령에 맞춰 재계약 채용신체검사를 간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배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창의융합교육원 측은 "지난해까지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던 원어민 주거관리 업무도 올해 3월부터 전담해 맡고 있다"며 "그동안 다소 복잡하게 이뤄졌던 행정절차와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성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방림유치원 '추억은 방울방울~'



광주방림유치원은 최근 바깥놀이 활성화를 위해 캠프놀이 주간을 운영하고 교사와 학부모, 유아들이 함께 참여해 비누방울과 물놀이, 모래놀이 등을 즐기는 캠프활동을 열었다. <방림유치원 제공>

영암전자과학고 3학년 36명 을 기능사 자격증 5개 취득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교장 김을식) 3학년 학생들이 올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대거 합격했다.

1일 영암전자과학고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3학년 학생들이 50건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별로는 ▲전기기능사 7건 ▲전자기기기능사 24건 ▲승강기 기능사 4건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3건 ▲한국사검정능력시험 2건 ▲워드프로세서 10건 등이다. 이는 3학년 전체 학생(36명)의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의미다.

김을식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실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TV에서 본 로봇 직접 코딩해보기

조선대 SW융합교육원, 전남 초등생 대상 로봇코딩교실

조선대 SW융합교육원(원장 정일용)이 전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코딩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대 SW융합교육원은 최근 사흘간 장성삼서초등학교(교장 박석규)에서 장성삼서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9년 소프트웨어(SW) 로봇코딩교실'을 열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올해 소프트웨어

(SW)체험주간 운영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SW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세교육연구소(대표 오영학)와 함께 지무로봇, 오조봇, 알파1로봇 등 다양한 로봇과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한 남학생은

"지금까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로봇들을 내가 직접 코딩하고 내가 코딩한대로 로봇이 움직이는걸 보니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친구같은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조선대 SW융합교육원은 또 오는 8일과 9일 원도신지초(유치원 포함), 군외초(유치원 포함), 신지동초, 지역아동센터 2곳, 고급중학교에서 로봇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전KDN,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세계로 가는 여름방학'

학술장학생 30명 유럽 해외 연수...9개팀 43명 전공연수

동신대학교(총장 최일) 재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해외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1일 동신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재학생 30명이 유럽으로 '2019 학술장학생

해외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12일 동안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돌며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언어 체험의 기회와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갖는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2019 해외전공연수'에는 총 9개 팀, 43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올해는 미국, 독일, 일본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홍콩에서 팀별로 4~11일 동안 진행한다.

한편 동신대는 지난 2018학년도 총 372명의 학생들을 미국과 독일, 캐나다, 일본, 중국, 덴마크, 영국, 북유럽 등으로 보내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40돌' 광주대, 슬로건 찾아요

이달까지 재학·졸업생·교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대학의 가치와 역사, 자부심을 담아낼 수 있는 개교 40주년 기념 슬로건 및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일 광주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아 재학생과 교직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슬로건 및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슬로건 및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주대 홈페이지 일반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서는 서명 후

스캔해야 하며 슬로건과 행사 아이디어 구분 없이 통합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응모작은 개교40주년 기념사업단에서 ▲주제 ▲표현의 적합성 ▲연관성 ▲창의성 ▲전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최우수와 우수, 인기작을 선정해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작 1명에게는 50만원 상당, 우수작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 인기작 2명에게는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